박철의 집
징

누구요?

저… 이 집이 진평 회사 부사장선생님댁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간만…

어디서 왔소?

은하연구소 자재
과장동지의 소개
로 왔습니다.
아, 자재과에서 함께
일한다는…
제가 은옥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어서.
제 입직문제를 꼭 해결해주시겠지요?
착 착
글쎄…

그건 내 혼자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요. 여러 사람과 합의해야 하거든.
저, 그럼 사업비로…
난 돈 그리운줄 모르니 그런건 필요없소.
아니?…

동문 참 매력있구만.

아이, 이러지 마세요.

연구소 소장방
지금까지 연구된 기술수치들의 실용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래일 야외시험장에서 종합적인 재질시험을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험!
?
미량원소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하겠다는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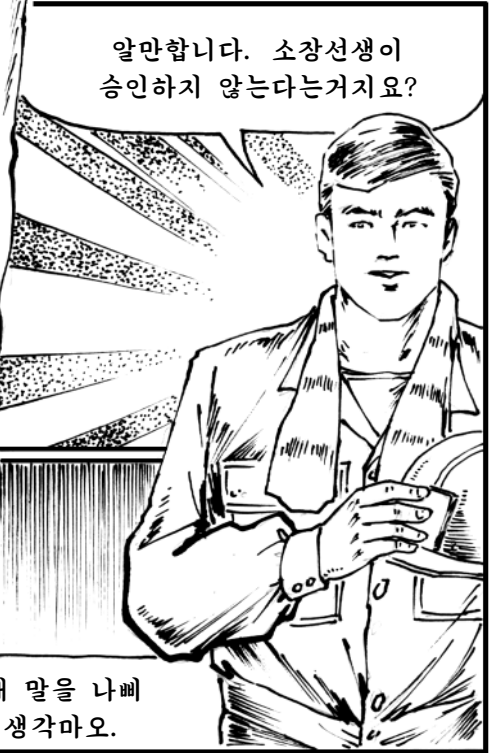
래일시험의 목적이 연구자료들의 부족점을 확증하자는데 있는것만큼 가능합니다.
그렇다?…

야외시험장
진국동무. 조임대를 더 바싹 조이오.

학봉동무, 그 지지대를 더 경사지게 눕히는게 어떻소?
예, 알았습니다.

저, 기술부소장동지!…
아니?
호성
동무가?!
어떻게 왔소?
오늘 재질시험을 한다는 말을
듣구 찾아왔습니다. 저두 이
시험에 참가할수 없겠습니까?
동무는 연구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인데 무엇때문에
이 시험에 참가하겠다는거요?

제가 담당했던 특수합금강연구를 완성하자면 오늘시험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도 특수합금강연구를 계속하고있소?
그 연구를 포기하는것은 과학자로서저의 량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난 동무를 보내고싶지 않았지만 상급의 지시이니 어쩔수 없었소.
동무의 연구과제를 다른 동무에게 맡겼더니 왜 그런지 제자리걸음만 하고있소. 참 야단났소.
그 연구는 하루빨리 성공하여야 합니다. 저를 오늘시험에 참가시켜주십시오.
월 공정계획도

난 동무를 참가 시키고싶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좀 복잡하게 번져질것 같소.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동무도 소장선생의 성미를 잘 알지 않소.
알만합니다. 소장선생이 승인하지 않는다는거지요?
내 말을 나삐 생각마오.

정 그렇다면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던김에 지금 시험대에 설치하고 있는 시험편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확 인
한번 보는거야 뭐라오. 내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들어가보오.
지금 호성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기 그지없었다.
어언 3년세월 고심어린 탐구와 피땀을 고스란히 기울여온 그의 노력이 이 시험편에 깃들어있었기때문이였다.

자기 창조의 열매가 시험되는 이 마당에서까지 배척당해야만 하는 억울함과 가슴아픔을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한단 말인가!

호성은 괴로운 마음을 가까스로 달래며 량볼을 눈물로 적시고있었다.

호성동무가?!…
멍애
?
!

시험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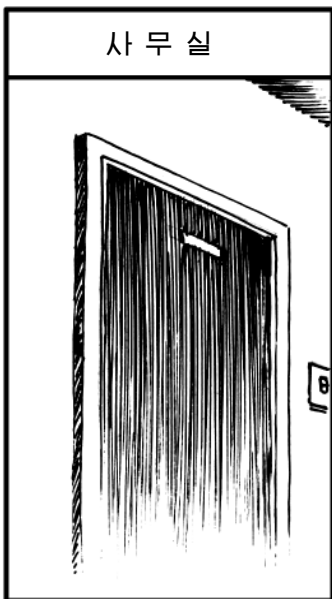
알았다.
시험준비!

시작!
붕
!!!
의잉!

앗! 사고다!
빨리 배전실 전원을 끄라.
붕붕

기술부소장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글쎄… 뜻밖의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시험도중에 폭파사고는 없지 않았소?
예, 제 생각에는 … 그 누구인가의 작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소. 의식적인 파괴행위가 분명하오.

시험장에 외부인원이
들어온 일은 없소?
어제 낮에 호성동무가 왔
다간 후엔…
호성이가?
그 동무가 왜 왔댔소?
재질시험에 참가시켜달라기에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기만 하겠다기에
제가 승인했습니다.
그 동무가 시
험장안에 들어
왔댔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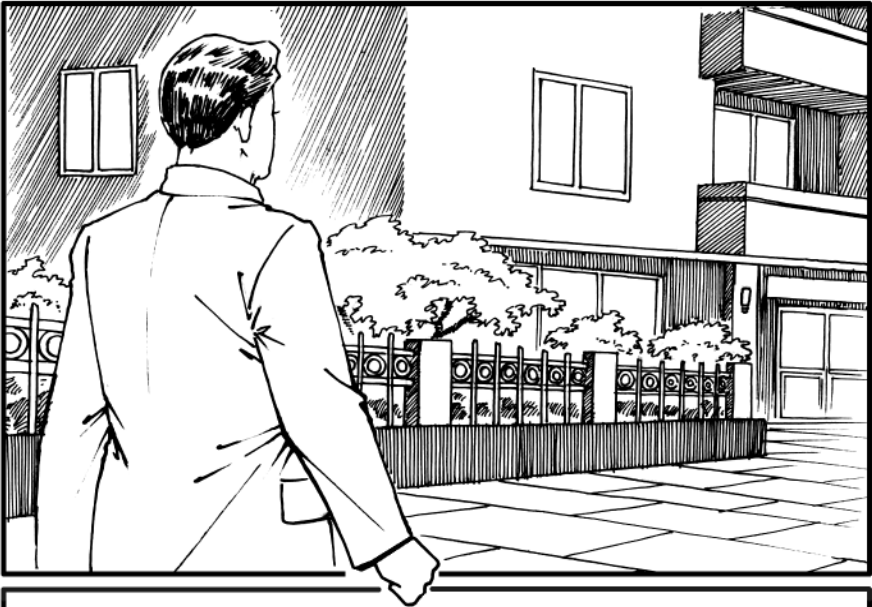
정말 한심하구만. 내 이런 일이 있을것 갈애서 그 동무를 수직갱으로 돌려놓았댔소.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동무가 질줄 아시오.
예.
사무실
이번 폭파사고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이번 사건은 《쏘가리》의 목표가 시험장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전번에 폭약창고에서 훔쳐낸 폭약의 일부가 이번에 사용된게 틀림없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그럼 이번 사고에 또 호성이가 련관되여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림호성이 외국에서 적기관에 흡수 되였다면 이번 사고를 저지 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망책 《쏘가리》와 련결되여있겠는가? 또 갑자기 폭발물이 어데서 생겨났겠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음...

만약 그를 흡수한 적기관이 《쏘가리》망을 움직이고 있다면 호성이는 돌아오자마자 망책 《쏘가리》에게서 폭약을 받아가지고 범행을 저지를수 있습니다.
!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의심을 앞세우다가는 적들의 음흉하고 교활한 모략에 넘어갈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그 말을 듣고보니 생각되는바가 있습니다. 현철동무의 통보에 의하면 호성은 수직갱으로 옮겨간 후 정신적타격을 받고 고민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자로서의 량심을 잃지 않고 특수합금강 연구를 계속하고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성동무의 결백성을 엿볼수 있게 하는 참으로 귀중한 동향자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된것처럼 현재 《쏘가리》는 시험장을 노리고있소.
때문에 동무들은 시험장에 대한 감시를 순간도 늦추지 말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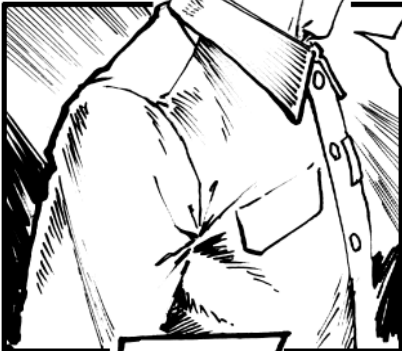
자재과장 경두와 창고장 은옥이의 일거일동을 빠짐없이 장악해야겠소.

과장 홍범은 늦게까지 협의회를 진행한 후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퇴근길에 올랐다.

그의 걸음은 저도모르게 집으로가 아니라 호성이가 일한다는 수직갱건설장쪽으로 향하였다.

하루일을 끝낸 온 나라 인민들은 우리를 믿고 이 한밤도 행복의 요람속에 잠들고있을것이다.

그런데 아직 음흉하고 교활한 망책 《쏘가리》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있으니…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척후병이고 담당자들인 우리 과학자들을 어째보려고 날뛰는 적들의 어리석은 책동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야 하는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달그락
누구요?

이 밤중에 여기서 뭘 하고있소?

시료를 채취하고있습니다.

시료?

말그대로 버럭인데 그속에서 광물첨가제를 찾아낸다는게 말이 쉽지 될것 같소?
물론 강바닥모래속에서 금싸래기를 찾는거나 갈습니다.
손이 말이 아니구만.
하지만 찾아내기만 하면 그만큼 특수합금강연구가 앞당겨질게 아닙니까.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는게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라는게 그쯤한 고생도 각오하지 않구야 성공할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엉터리없는 놀음을 한다구 조소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병자, 미치광이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끝내 연구를 성공시켜 인류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수 고하오. 내가 뭐 도울 일은 없겠소?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만 그런 호의는 필요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이 밤중에 과장동지가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허허, 이거 나한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구만. 우리들이 제일 섭섭한 때가 언제인줄 아오. 종종 이런 오해를 받을 때요.

제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니, 난 리해하오. 자, 수고하오.

만사람이 다 잠든 이 깊은 밤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서 스스로 고생을 달게 여기며 연구에 전심전력하는 저런 과학자가 과연 자기를 키워주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준 은혜로운 품을 배반할수 있단 말인가?
저렇듯 량심이 깨끗한
사람은 결코 당과 조국
을 배반할수 없다!

이 순간 홍범은 머리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에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호성에 대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천금과도 같은 귀중한것이다.

이 믿음은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풀어나갈수 있는 열쇠인것이다.

기회를 타서 호성이의 열쇠를 훔쳤으며 도망치면서 우정 범죄현장에 떨구어놓았을것이다.

셋째, 적들은 호성이가 시험장에 나타난것을 기회로 폭발물을 설치함으로써 호성이가 더 의심받도록 모략을 꾸미였을것이다.

이 가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적들이 호성이를 매장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럼 윤식이 역시 적들의 모략에 걸려 죽은것이 아닐가? 아니, 윤식이는 돈과 재물에 현혹된 나머지 불순한자들과 교제하는 과정에 적들의 모략에 걸려들었을것이다.

그렇다면 《쏘가리》가 노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놈은 어떤 대상을 목표로 폭약을 훔쳐내였을것인가?

홍범은 무엇인가 안개속에 가리웠던 장막이 서서히 벗겨지는듯
한 예감을 느끼였다. 그는 자기의 추리방향이
옳다는것을 확신하였다.

자, 이걸 박철에게
먹여.
이게
뭐예요?

값이 대단히 비싼
희유금속이야.

박철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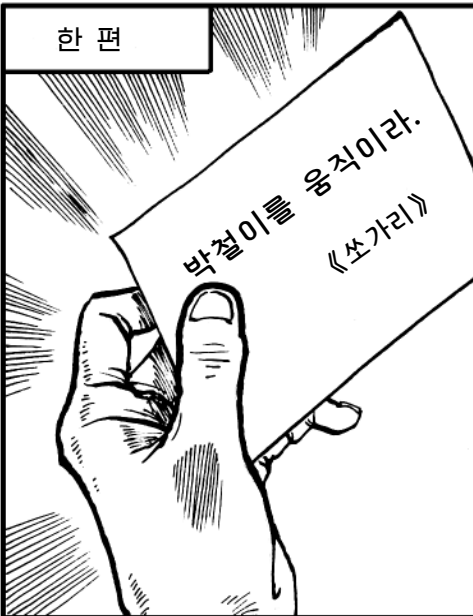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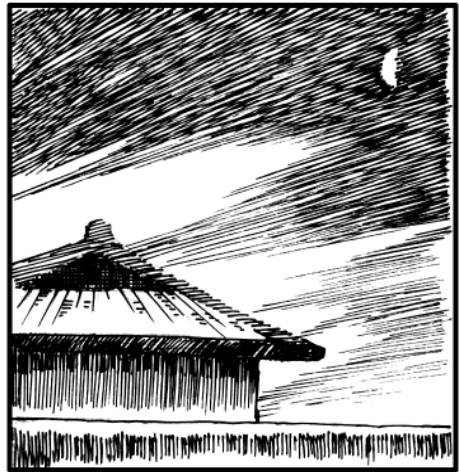
아니 이것?

대단히 질좋은 희유금속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을가?

이게 어디서 났소?

나하고 친한 동무가 좀 팔아달라면서 내게 맡기더군요. 나도 이런건 처음이여서 알수가 있어야지요. 혹시 돈이 되겠는가 해서 가져왔어요.

내보기엔 가짜같구만.

가짜..?

그럼 쓸모가 없는가요?
쓸모?
진짜 희유금속이야 쓰는데가 많지…
진품이라면 좋겠는데 …
얼마 안되는거라도 받아야지요 뭐. 그걸 끼구있어선 뭘하겠어요?

그럼...
은옥일 위해서 한번 동작해본다?

그럼 언제 만날가요?

다음번 일요일에 내 차를 타고 놀러 가는게 어때?
좋아요

며 칠 후
탕
탕
탕탕탕
누구요?
은옥이예요.
정신있어? 처가 집에 있는데 찾아오면 어떡해?
큰일났어요. 그래서 할 수없이 찾아왔지요 뭐.
조용해. 저쪽에 가서 이야기하자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 난 그 희유
금속을 내 동무에
게서 받은게 아니
라 우리 자재과장
한테서 받았어요.
뭐? 그 협잡군
말이야? 그런데
어쨌다는거야?
그건 광산창고에서 훔
쳐낸건데 훔친 놈이 붙
들렸대요.
지금 보안서에서 캐고
있으니 그 물건을 다
시 돌려달라는거예요.

뭐? 변상?
쿵
흠
은옥이, 이 일이 드러나면 너두나두 끌장이야. 국가재산을 밀매한 죄루 잡혀들어가. 알겠어?
그럼 어떡해요?
그런 물건을 받은 일이 없다구 딱 뻗쳐야 해. 그대신 내 돈을 더 주지. 그러면 되지. 응?

야! 화닥닥
그것두 돈이야?
그 많은 돈을
처먹구두 시치미를 떼는 도적
놈! 너 죽구싶어 몸살이야?
엉?
제… 제발 잘못했수다.
내 그 돈을 몽땅 내놓겠으니 제
발 용서해주시우.

그까짓 돈은 필요없어.
그대신 내가 시키는 일을 해줘야겠다.
도대체 날더러 뭘 하라는거요?
수군
수군
?
아니, 그런짓은 못하겠수다. 그것만은 못해.
잘 생각해봐.
스물네시간 여유를 주겠다. 래일저녁에 다시 오겠으니…

다 음 날
스물네시간 여유를 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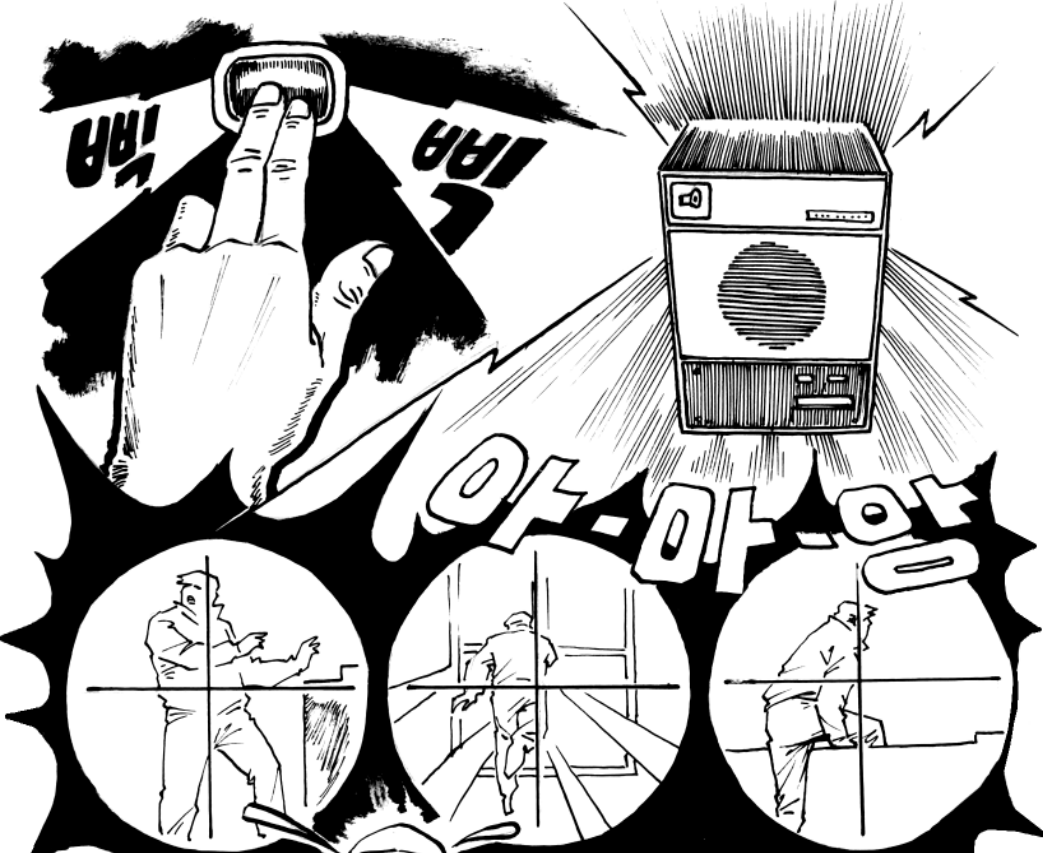
할수 없지. 죽는것보다 까무라
치는게 낫다는데.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그 날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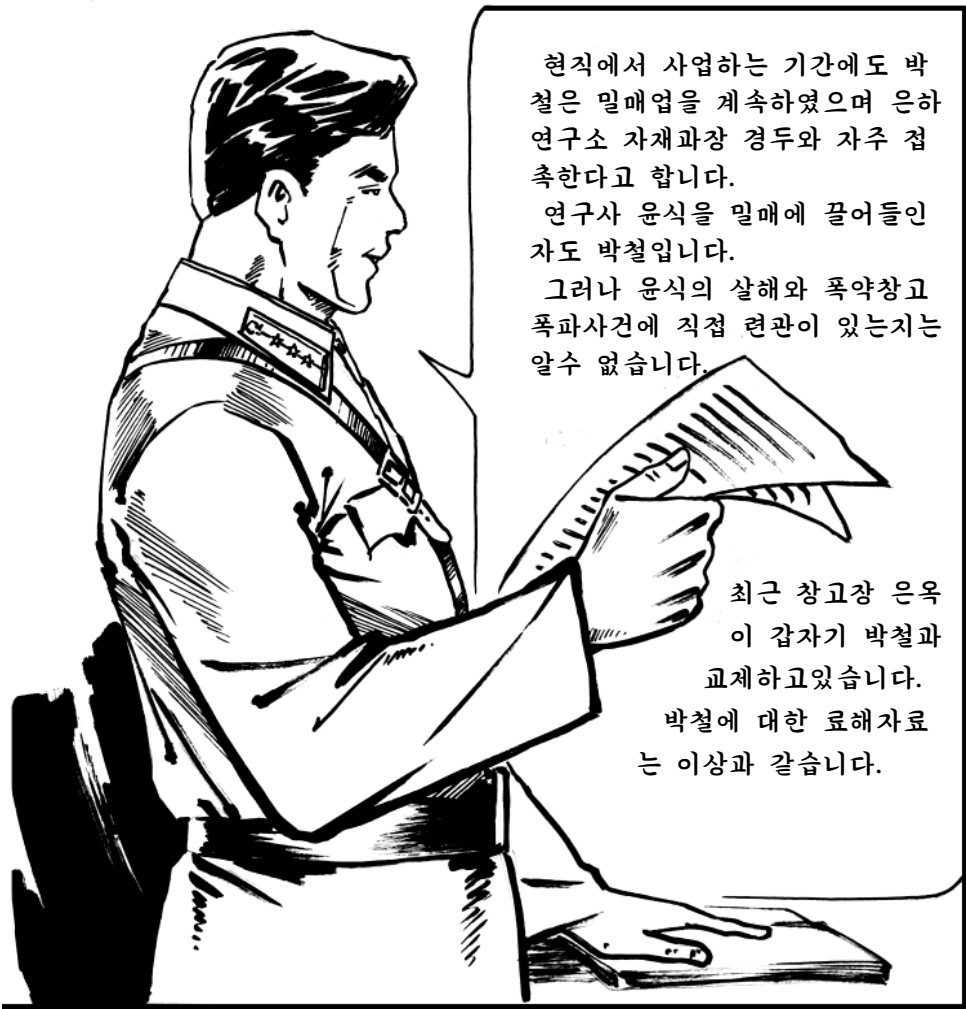
5번. 나 8번. 정체모를
자가 연구소담장으로 접
근하고있다.
...대상이 담장을
넘고있다

알았다. 놀래
우지 말고 계속
감시하라.

대상이 시험장안에 들어섰다
시험대에 다가섰다
무엇인가를 설치한다
약간 놀래워 쫓아버리라
알았다.

대상이 도망친다.
어떻게 하라는가?
체포하지
말고 은밀히
미행하라.

사 무 실
어제밤 사건에 대해 토론을 합시다.
연구소에 침입하여 시험장치에 폭약을 설치한 자는 진평회사 부사장 박철입니다. 이것이 폭약입니다.
그리구 이것은 당시 박철의 움직임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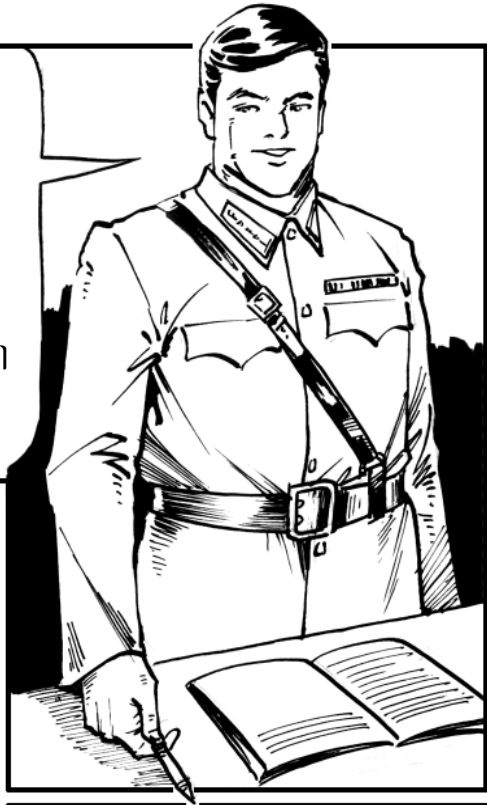
덕만동무. 박철에 대한 자료를 알아봤소?

예, 박철은 사금채취를 하던자인데 일정하게 밑천이 마련되자 여러가지 밀매업을 했습니다.
5년전에 여기 진평시로 옮겨온 박철은 진평회사에 입직하였습니다.
박철은 무역에서 솜씨를 보여 2년후에는 과장으로 ,3년후에는 지금의 부사장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현직에서 사업하는 기간에도 박철은 밀매업을 계속하였으며 은하연구소 자재과장 경두와 자주 접촉한다고 합니다.
연구사 윤식을 밀매에 끌어들인자도 박철입니다.
그러나 윤식의 살해와 폭약창고폭파사건에 직접 련관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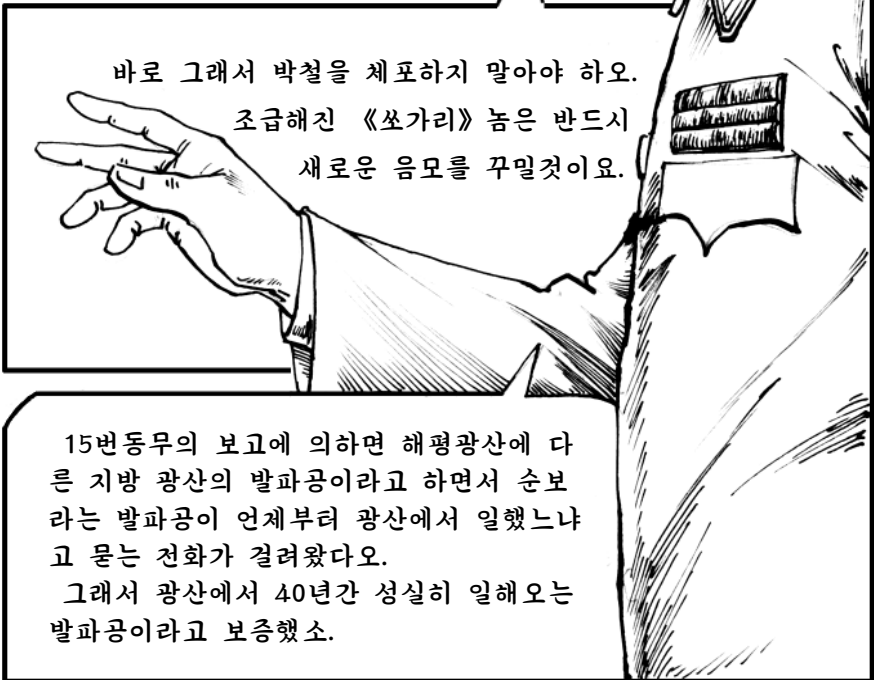
최근 창고장 은옥이 갑자기 박철과 교제하고있습니다.
박철에 대한 료해자료는 이상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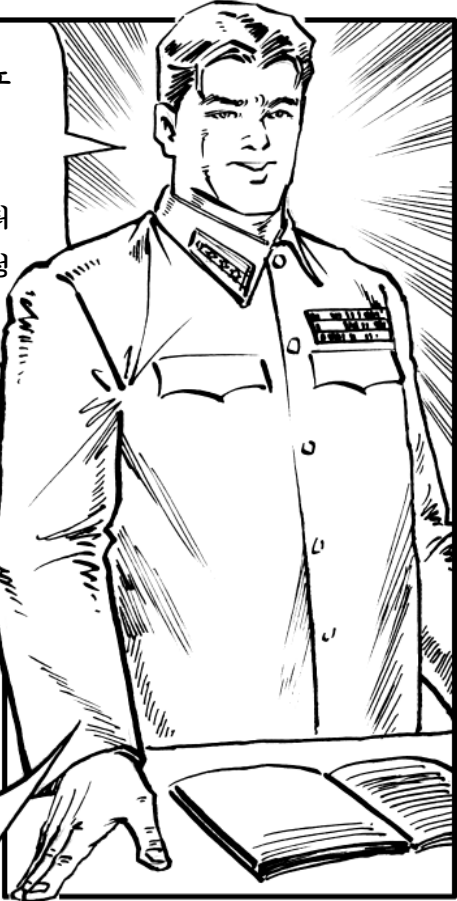
박철은 지금껏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있다가 이번에 급작스레 시험장에 침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망책《쏘가리》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박철은 《쏘가리》의 왼팔이나 오른팔격의 인물로서 경두와 은옥, 윤식을 뒤에서 조종한것으로 보아집니다. 때문에 지금껏 정체를 숨기고있었을것입니다.

그것은 《쏘가리》의 목표 즉 놈들의 이른바《안개작전》의 목표가 시험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들은 시험설비를 폭파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연구사업을 파탄시키려 하고있습니다.
옳습니다. 망책 《쏘가리》놈의 《안개작전》이 결정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간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있던 박철이 움직인것입니다.

동무들의 추리에 일리가 있소. 시험장에 대한 폭파시도는 벌써 두번째요.

박철을 체포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아직은 안되오.
박철을 잡으면 그와 련결된 경두, 은옥이는 물론 《쏘가리》까지 다 놀래울수 있소.

이번 박철놈의 거사가 실패했으니 《쏘가리》놈이 어지간히 속이 달았을겁니다.
바로 그래서 박철을 체포하지 말아야 하오. 조급해진 《쏘가리》놈은 반드시 새로운 음모를 꾸밀것이요.
15번동무의 보고에 의하면 해평광산에 다른 지방 광산의 발파공이라고 하면서 순보라는 발파공이 언제부터 광산에서 일했느냐고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오. 그래서 광산에서 40년간 성실히 일해오는 발파공이라고 보증했소.

헌데 전화를 걸어온 곳은 다른 지방 광산이 아니라 우리 시중심의 체신소라오. 생각되는 점이 있소?
역시 《쏘가리》는 예민하고 로련한 놈입니다.
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쏘가리》놈이 시험장치를 노리는것이 명백해진것만큼 우리도 거기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해야겠소. 준호동무는 이제부터 감시조의 위치를 시험장으로 정하시오.
알았습니다.
덕만동무는 진평회사 부사장 박철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되 그와 접촉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보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동무. 현철동무에게 오늘 협의된 내용을 알려주시오.
시험장을 주시하며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전달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철동무가 담당했던 은옥이와 경두에 대한 집중감시와 호성에 대한 료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옥이와 경두의 움직임은 장악해야 하오.
하지만 적들이 진짜 목표인 시험장을 가리우기 위하여 호성이를 건드려 우리의 주의를 그쪽으로 유인하려 했다는걸 알아야 하오.

언제나 놈들이 노리는건 우리 내부에 불신임을 조성하고 일심단결을 파괴하자는것이니까.
옳습니다. 호성을 의심하는 동안 박철은 지금까지 우리의 감시밖에 놓여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최종목표는 《쏘가리》요. 이번 거사에서 실패한 그놈은 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
시험장에 접어들거요.

그게 혹시 자네가 찾는다는 그 광물시료가 아닌가?

순보아바이, 이건 흔한 돌입니다.

허허… 자네를 돕고싶은 마음에서 우정 가져왔는데… 괜한짓을 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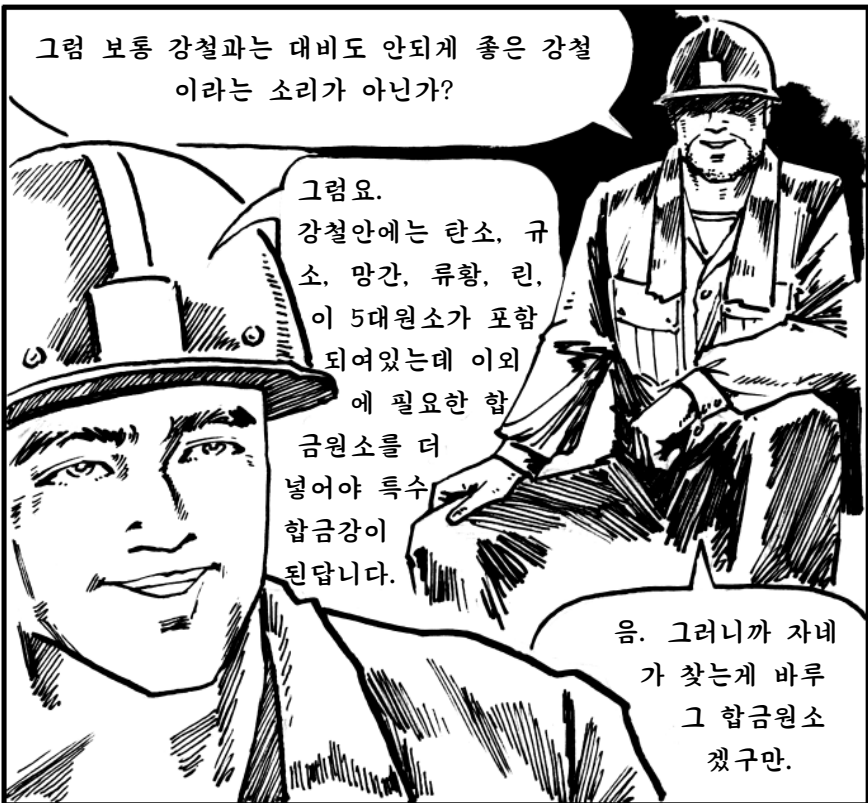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네가 연구한다는 그 특수합금강에 대해서 좀 말해줄수 없겠나?

도와주구 싶어두 아는게 있어야말이지.

그럼 보통 강철과는 대비도 안되게 좋은 강철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럼요.
강철안에는 탄소, 규소, 망간, 류황, 린, 이 5대원소가 포함되여있는데 이외에 필요한 합금원소를 더 넣어야 특수합금강이 된답니다.

음. 그러니까 자네가 찾는게 바루 그 합금원소겠구만.

옳습니다.
이 수직갱도 그 합금원소를 대량 생산할 목적으로 뚫고있지요.
그런 합금원소를 찾느라구 여기 저기 시추기로 구멍을 뚫었는데 바로 이자리에서 3백메터깊이에 그런 희귀한 합금원소가 매장되여 있다는것이 발견되였으니까요.
잘 알겠네.
앞으로 종종 모를것이 있으면 물어보겠으니 잘 가르쳐 달라구.
그럼 수고하겠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 순보아바이가 무엇때문에 내 일에 남다른 관심을 돌리는걸가? 확실히 저 아바이는 눈치가 달라. 이상한데.

그날밤

호성은 자정이 넘도록 연구에 몰두하고있었다.

아, 피곤하다.

새벽 공기가 참 시원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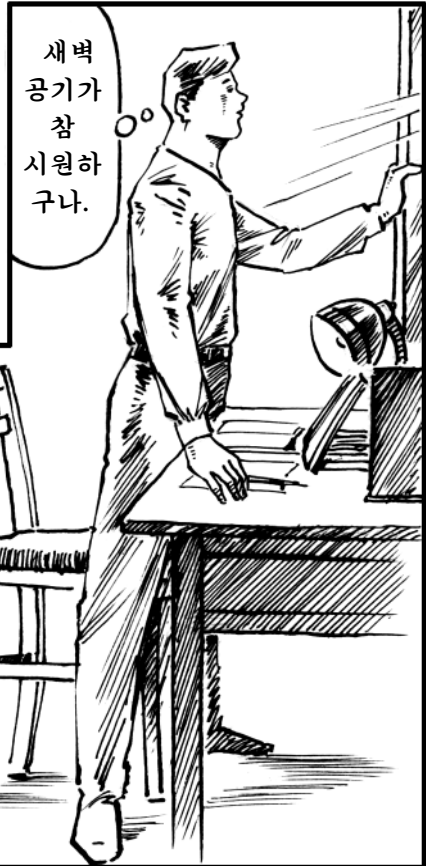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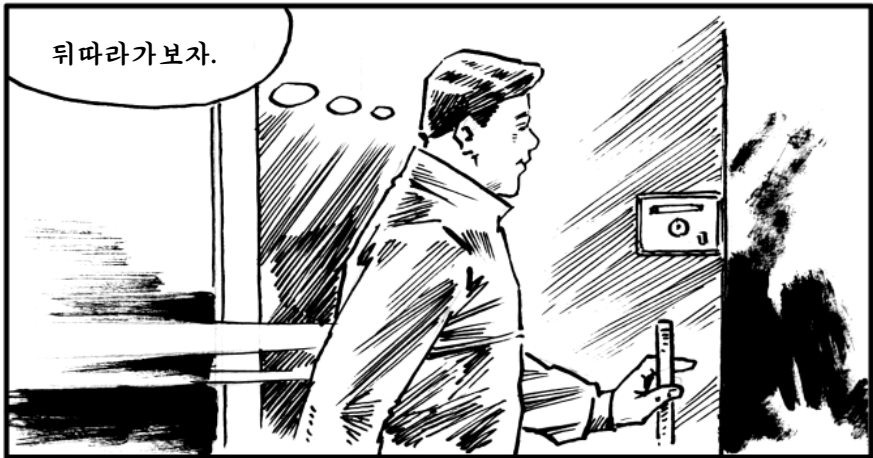
순보 아바이가 이 새벽에…

난 동무를 믿소. 동무주위에서 적간첩놈들이 움직이고있는것만큼 동무도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겠소.

알겠습니다.

가만.
앞서가는
누구인가를
뒤따르고
있구나.

앞서가는 사람은 누구이고 순보아바이는 왜
그를 뒤따르는걸가?

아!
없어
졌구
나.

그날 시험장안에 내 발자국이 남았으니 혹시 … 아, 난 끝장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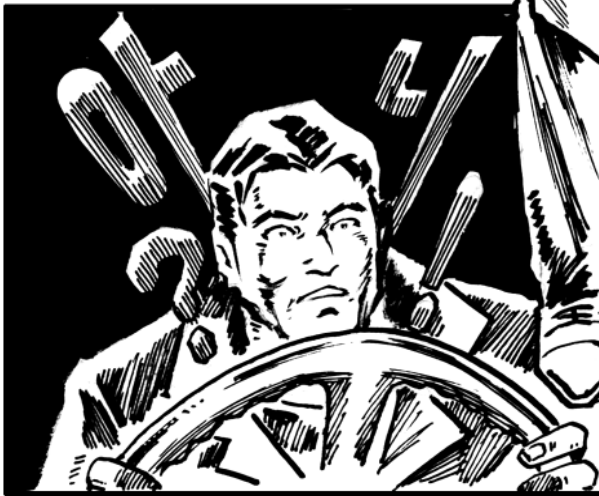
어떻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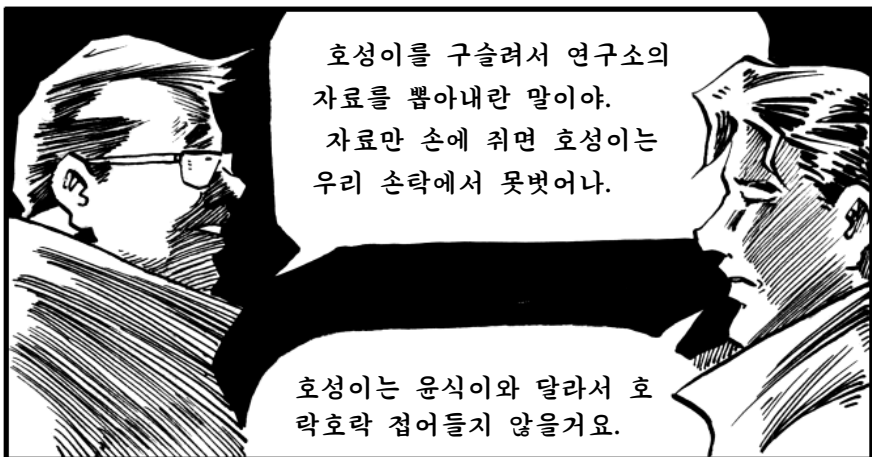
도망을 쳐야
살수 있다.
아니?!

박철이,
어딜 가려나?

회사에 볼 일
이 있어서…

도망치려 했지?

아,
아니…

내 전에두 말했지만 뛰여야 벼룩이야.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됐수다. 왜 또 왔소?
거사가 실패했으니 일을 마저 끝내야지.
난 섶지구 불속에 뛰여드는 그런 일을 더 못하겠소.

그래두 윤식이는 잘 구슬리던데…
그거야 돈과 재물루 구슬리는 일이 아니요. 그런거라면 몰라두…
좋아. 그럼 소원대로 해줄테니 이번엔 실패하면 안돼.
또 뭘하라는거요?
호성이를 알지?
윤식이하고 우리 집에 몇번 놀러 와서 좀 알지요.

호성이를 구슬려서 연구소의 자료를 뽑아내란 말이야. 자료만 손에 쥐면 호성이는 우리 손탁에서 못벗어나.
호성이는 윤식이와 달라서 호락호락 접어들지 않을거요.
흥, 그땐 죽여버리구말아야지.
아, 아니. 난 사람 죽이는 일은 못하우다.
야, 너 아니래두 그까짓놈 하나 처리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말아.

그러니 네 할일이나
똑바루 하란 말이야.
알겠수다.

수직갱공사장

호성이,
수고하누만.

벌써 작업이 끝났습니까?
바줄을 창고에 바치러 가네.
순보아바이가 그날밤 누구를 뒤따르고있었을가? 확실히 수상한 사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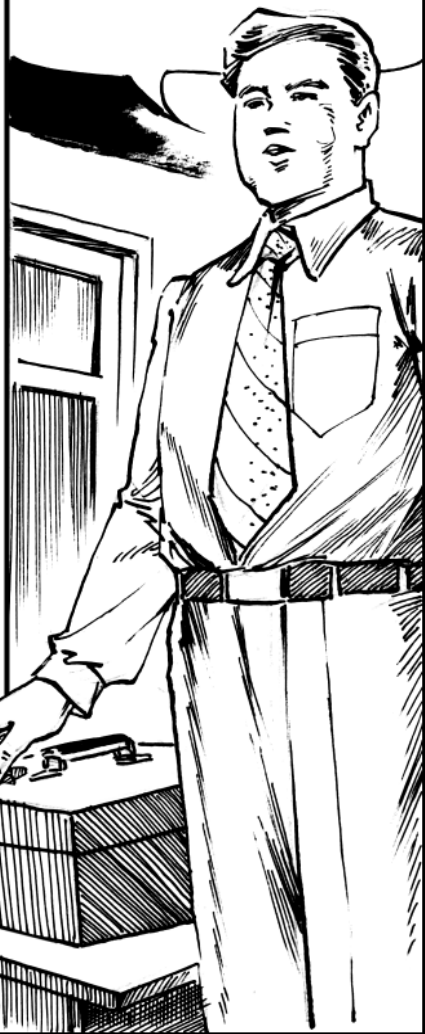
호성동무!

빨리 와서 예방
주사 맞으래요.
알겠소.
인차
가겠소.
아직 작업이 안
끝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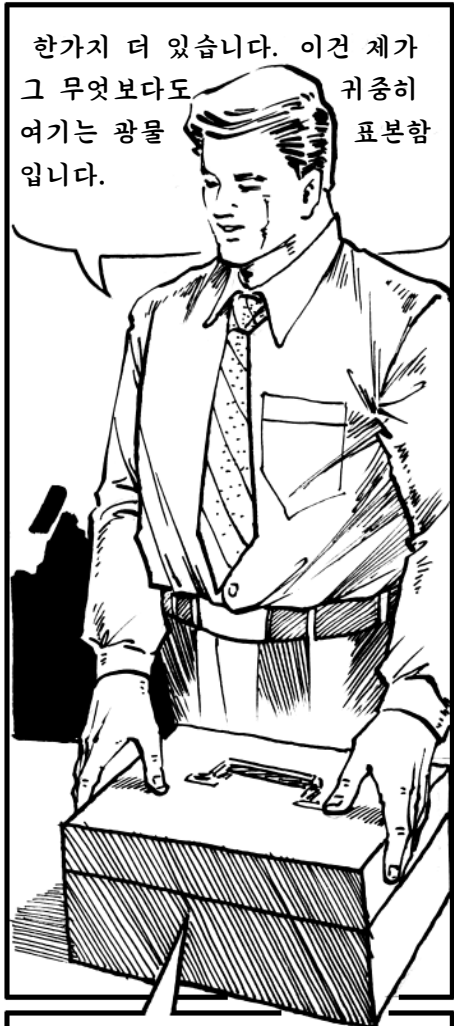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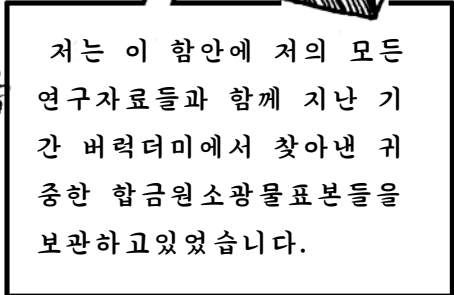
그럼 한대 태우구 같이 갈가?

하던 일을 마저 끝내려구요.

한달이 지난 어느날
쁘르릉
과장 홍범입니다. 은하연구소에서 호성동무가? 예, 들여보내시오.
날 찾아온걸 보니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모양이구만 .
예, 저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각던 끝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의심을 받는 중이라 걸음하기가 뭣했지만…

허허… 의심이라? 그래, 어서 말해보오.
제 보기엔 광산에서 온 순보아바이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내 흥분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말하오.

한 보름전에 있은 일입니다. 그 날 퇴근후 목욕을 하고 문밖을 나서는데 누가 갑자기 나를 힘껏 밀치는게 아니겠습니까.
목욕
목욕
그 순간 목욕탕 지붕에서 기와장들이 와르르 떨어져내리는것이였습니다.
그 기와장들은 목욕탕지붕공사를 위해 올려놓았던것인데 분명히 나를 노리고 우정 떨어뜨린것 같습니다.

넘어지면서 뒤를 돌아보니 목욕탕안으로 황급히 자취를 감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소?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순보아바이와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소?
그후 며칠이 지나서 내가 밤교대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작업장에 버럭통이 내려왔기에 전 거기에 버럭을 가득 담아 스위치를 넣어 올려보내였습니다. 버럭통이 거의 올라갔을무렵 갑자기 정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갱안이 어두워서 전 한동안
그자리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갔던 버럭통이 미끄
러져 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순보
아바이가 나타났는데…
순보
아바이가?…
그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섬찍
해서 온몸에 소름
이 끼치더군요.
음!

저는 이 함안에 저의 모든 연구자료들과 함께 지난 기간 버럭더미에서 찾아낸 귀중한 합금원소광물표본들을 보관하고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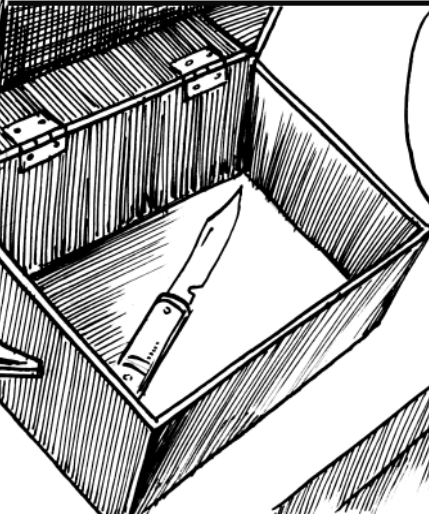
이 통안의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밤에 있은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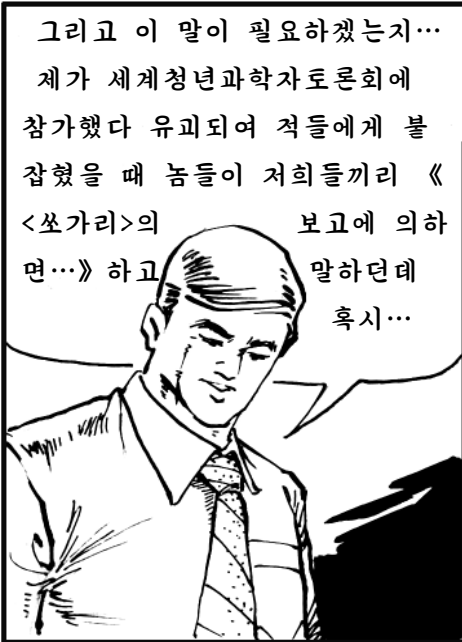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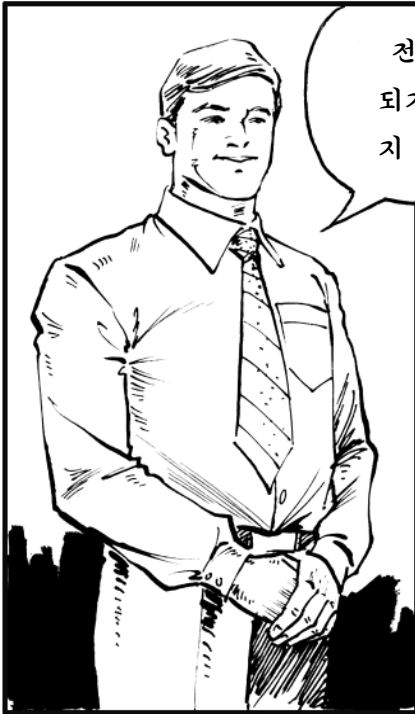
저녁밥을 먹고난 뒤 저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버럭더미에서 필요한 광물시료를 채취할 생각으로 합숙을 나섰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뒤따르는것만 같아 얼핏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던 사람은 내가 돌아보는 순간 담배불을 붙이는 척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더군요.
그러나 나는 그가 다름아닌 순보아바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불안했지만 내친 걸음이라 그대로 버럭이 쌓여있는 산등성이로 올라갔습니다.

산등성이에 올라 다시 돌아보니 순보아바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작업에 열중하다보니 그 다음엔 생각을 까맣게 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시간가량 지났을무렵 나는 이상한 느낌에 핵 돌아섰습니다.
아니나다를가 어떤 놈이 칼을 빼들고 나한테 달려드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그놈과 맞붙어 싸우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괴한이 와뜰 놀라며 홱 돌아서서 도망치더군요.
나는 그놈을 뒤쫓아갔지만 어찌나 날랜지 도저히 따라갈수 없었습니다.
그놈이 무엇에 놀라 도망쳤소?
전지불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쪽으로 전지불을 비쳐보더군요.
그렇소?

제가 찾아온건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오늘아침에 깨여나 함을 열어보니 저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이 깃들어있는 연구자료와 광물표본들이 몽땅 없어지고 글쎄…
이런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로골적인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호성동무의 각오가 그렇다니 나도 마음이 놓이오. 원쑤놈들이 제아무리 날뛴다 해도 절대로 호성동무를 해치지 못하오.
그리고 이 말이 필요하겠는지… 제가 세계청년과학자토론회에 참가했다 유괴되여 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놈들이 저희들끼리 《<쏘가리>의 보고에 의하면…》하고 말하던데 혹시…
쏘가리?

전 이 말을 했댔자 괜한 변명이 되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에 아직까지 말을 못했드랬습니다.

《쏘가리》는 호성이가 세계청년과학자토론회에 참가하는것을 미리 알고있은 놈이다. 그러니 우리의 수사범위가 더 좁아진셈이다. 호성이의 토론회참가를 알고있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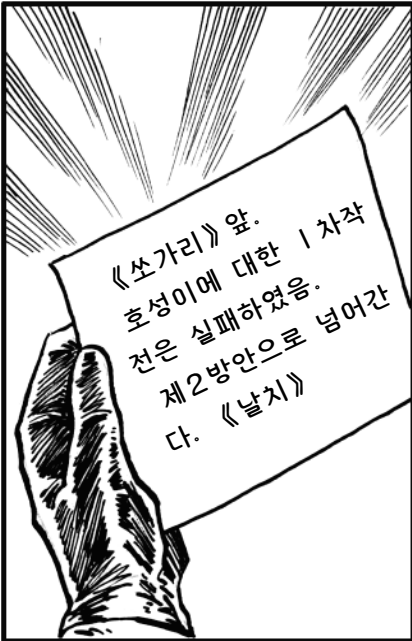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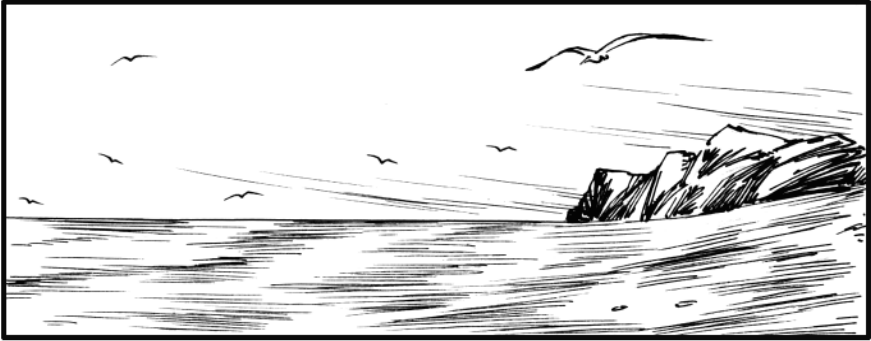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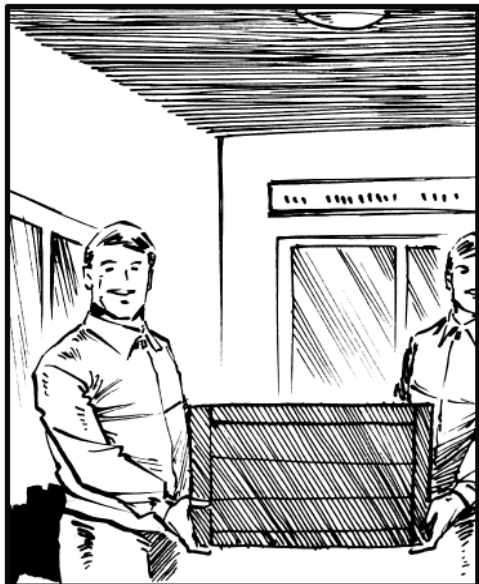
호성동무, 이건 사건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요.
아무때건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면 꼭 찾아오시오.

《쏘가리》앞.
호성이에 대한 1차작
전은 실패하였음.
제2방안으로 넘어간
다. 《날치》

시 험 장

소장선생. 담당부위원장 동지가 오셨습니다.

연구사업에 도움이 될거요.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동지.

금속재질의 열견딜성이 매우 약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특수설비제작이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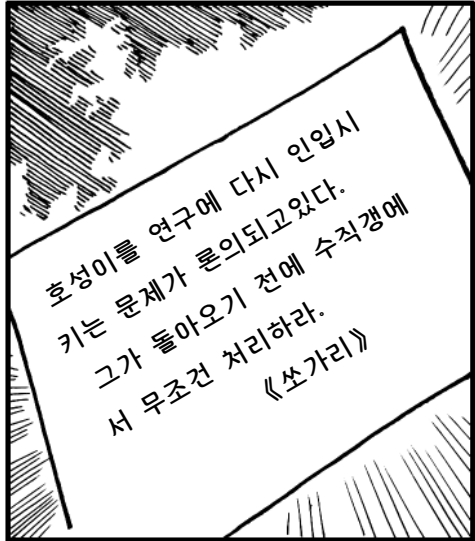
그렇다? 그럼 대책은 뭐요?

소장선생. 아무래도 호성동무를 연구에 다시 인입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열견딜성에 관한 금속재질연구과제를 그 동무가 담당했던것만큼…
탕
또 그 소리요?
그건 절대로 안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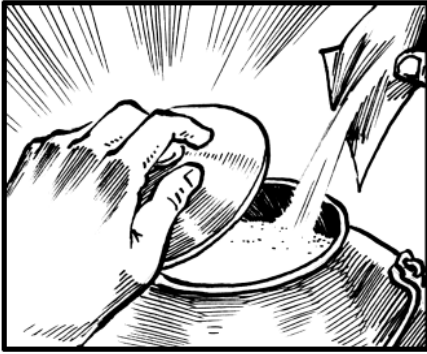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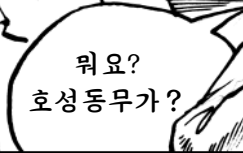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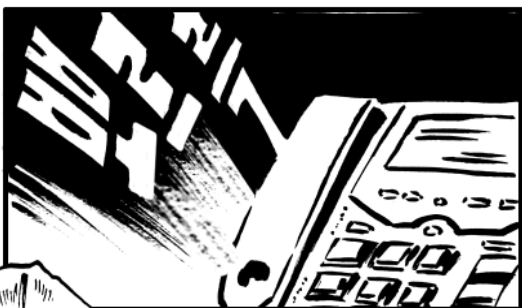
왜 안된다고 그럽니까?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호성동무는 수직갱공사장에 가서도 특수합금강연구를 계속하고있다고 합니다.
내 이미 말하지 않았소. 호성동무문제는 좀 복잡하다고말이요. 부소장동무도 호성동무때문에 단단히 말을 듣지 않았소?
그건 그렇지만 특수설비제작기일이 박두해오는데 아직까지도 열견딜성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호성동무를 다시 연구에 인입시키는 문제는 좀 더 두고봅시다.
모든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말이요.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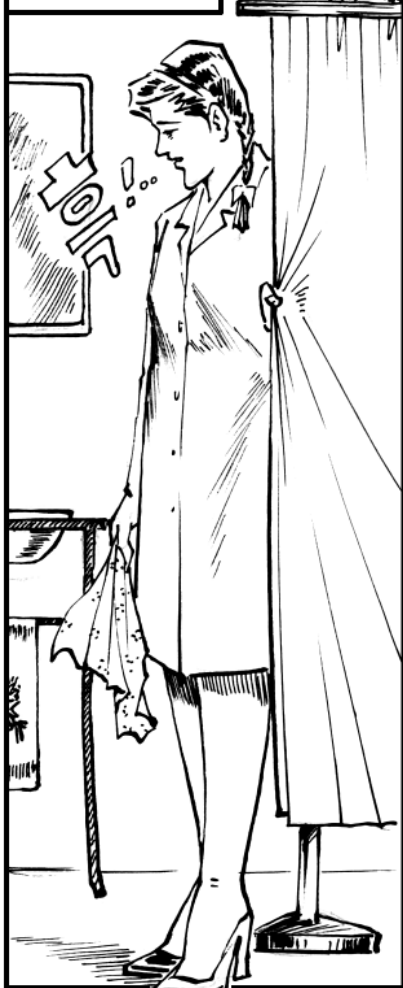
?!

공 사 장
호성이!
?!
온통 땀투성이구만.
한대 태우면서 좀 쉬라구.
예?
싫수다. 아바이나 피우시우.
허, 이거 말투가 곱지 못하군.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남의 일에 참견말구 제 일이나 보시라구요.
허, 성미가 고약한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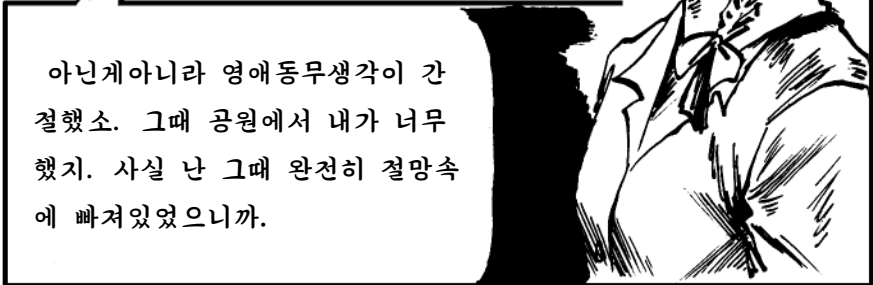
휴 계 실
휴 계 실

휴게실
아!
여보시오. 과장 홍범 입니다.
뭐요? 호성동무가?

병 원
환자의 상태가 어떻소?
약간의 중독증상은 있지만 생명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약물중독이 해소될 때까지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소?

왜 그렇게 생각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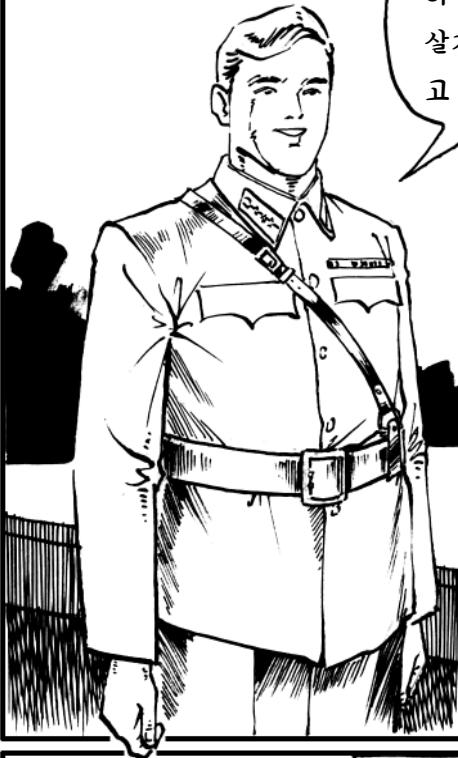
제가 일할 때 순보아바이밖에 왔다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왔다간 다음에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순보아바이에 대해선 우리가 조사하겠소. 아직은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하지 마오.

며 칠 후
흠!..
누구요?
호성동무, 좀 어때요?
아니? 영애동무가?
전 무척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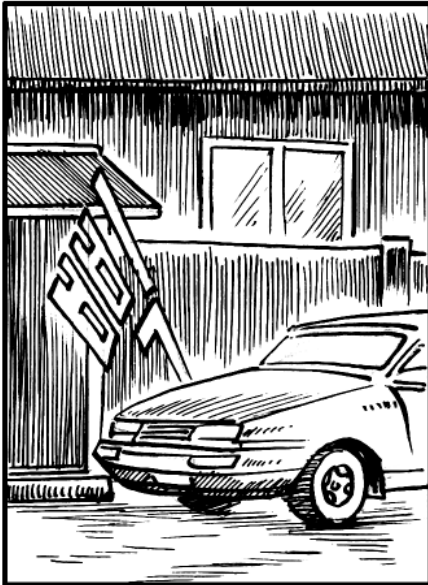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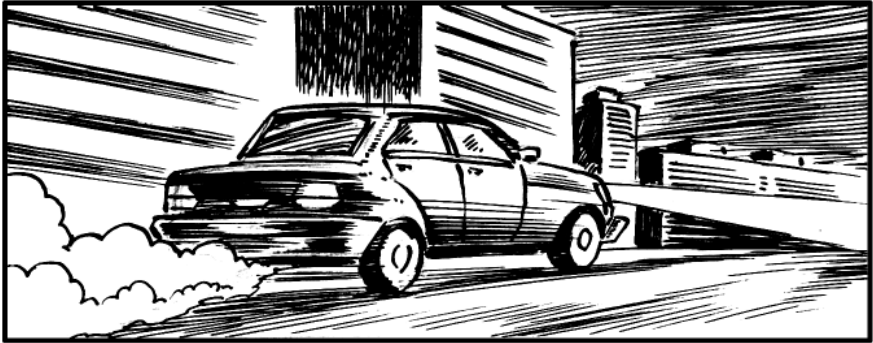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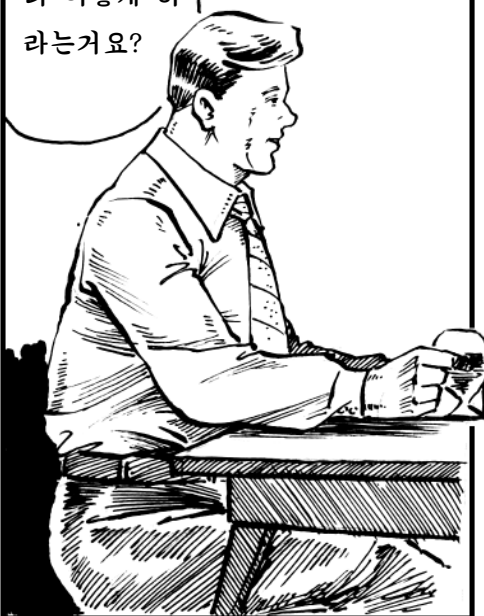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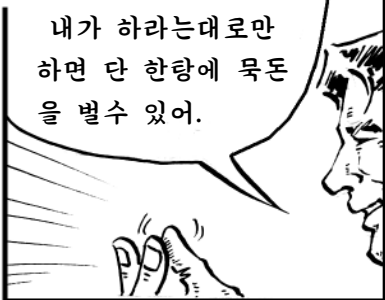
보다싶이 난 일없어.
그래도 몹시 축갔어요.
괜찮다는데…
혼자서 힘들었겠어요.
아닌게아니라 영애동무생각이 간절했소. 그때 공원에서 내가 너무했지. 사실 난 그때 완전히 절망속에 빠져있었으니까.

그사이 난 많은것을 깨닫게 되였소. 인생길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게 아니였소. 사람들은 가끔 우여곡절앞에서 갈팡질팡하는데 내가 바로 그랬댔소. 그게 다 마음속의 대가 굳건하지 못한 탓이였지.

신념의 대가 굳건한 사람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법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번에 깨달은 진리요.

사 무 실
과장동지, 현철동무의 보고에 의하면 호성동무를 노리는 놈들의 암살기도가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철동무의 의견은 뭐요?
시급히 암살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호성동무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렇소. 이젠 우리가 주도권을 쥘 때가 되였소.
호성동무를 며칠간 병원에서 내보냈다가 다시 입원시킵시다.
호성이 나오면 《쏘가리》놈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거요.
박철이를 체포하고 암살자도 제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거요.

며 칠 후
호성이 나타났군.
박철형, 오래간만이요.
호성이, 잘 있었나?
어딜 가나?
볼일이 있어 나왔다가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이예요.
그럼 타라구. 내 태워다주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집에 가서 한잔 하세.
아니? 어디로 가는거요?

자, 들어가자구.

호성이, 인생길엔 《바를 정》 자만 있는게 아니야. 《갈 지》 자도 있네.
그래,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거요?
내가 하라는대로만 하면 단 한탕에 묵돈을 벌수 있어.
어떻게요?

연구소의 자료를 거액의 값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그걸 내 콤퓨터에 복사해주면 돼.
그게 진담이요?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
흥! 당신은 날 잘못봤소.
윤식이를 그렇게 꼬여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더니 이젠 나까지? 어리석소! 더럽소!

호성이
돈이라면 조상도 팔아먹을 너절한 인간쓰레기!
저 자식이 혹시 날 고발하려는게 아니야?

꼼짝말앗!
엉?!
박철. 너는 체포되였다.
끝장이구나.

네놈같은 인간추물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일심단결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절대로 없앨수 없다.
지키며는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
향도성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세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